

전남도, 섬·어촌에 2556억 투입...정주여건 개선 나선다

어항 개발·해양레저 인프라 등 57개 사업 진행...경제 활성화 견인 기대 섬 브랜드화 정책도 추진...청년 섬 워크캠프 개최 등 글로벌 홍보 강화

전남도가 도내 섬과 어촌지역에 올해 2556억원을 투입한다. 섬 정주여건 개선, 어항개발, 해양레저 인프라 조성 등 57개 사업을 벌여 어촌 경제를 견인할 계획이다.

10일 전남도에 따르면 올해 2026 여수세계섬박람회로 시작되는 섬 종합발전사업, 케이(K)-관광 섬, 어촌신활력사업, 어항 정비, 해양레저관광 거점화, 해수욕장 운영, 국제청년 섬 워크캠프 등 섬·어촌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준비중이다. 전남도는 전국의 4할이 넘는 풍부한 어업기반을 바탕으로 섬과 어촌을 매력적인 해양관광지와 활력 넘치는 정주공간으로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2026 여수세계섬박람회의 성공 개최를 위해 428억원을 추가 확보했다.

2026년 9월 5일부터 11월 4일까지 2개월간 열리는 박람회가 섬의 가치를 세계적으로 알리고 해양관광 활성화를 앞당기는 중요한 전환점이 되도록 준비하고 있다. 섬 정주여건 개선과 섬 관광 활성화에도 적극 나선다.

섬 종합발전사업으로 9개 시·군, 79개 섬에 659억원을 들여 공동작업장, 방파제, 연륙과 연도교 등 섬 기반시설을 확충한다. 또 신안 흑산도와 여수 거문도에 2026년까지 4년간 210억원을 들여 매력적인 케이-관광 섬으로 집중 육성한다.

7년만에 전남에서 열리는 섬의 날 기념행사도 다채롭게 준비하고 있다. 오는 8월 8일부터 11일까지 4일간 완도 일원에서 개최되는 제6회 섬의 날 기념행사를 통해 섬의 가치와 중요성을 알리고, 방문객이 섬을 즐기고 체험하도록 다양한 프

로그램을 마련할 예정이다.

어촌 경제 활성화와 어항시설 정비를 위해 총 1190억원 규모의 예산을 투입한다. 어촌뉴딜300 후속 사업인 '어촌신활력증진사업'에 890억원을 투자해 민간 투자 활성화를 유도하고, 안전 인프라 전반을 지원함으로써 어촌의 경제적 활력을 높일 계획이다. 이와 함께 299억원을 투입해 지방어항 건설 및 보수·보강 사업을 추진, 어업인의 생활 안전과 재산을 보호하는 등 필수 기반시설을 확충할 예정이다.

해양관광 활성화를 위한 인프라도 지속 확충한다. 올해 165억원을 추가 투입해 보성 울포 해양복합센터를 국내 최고의 해양레저관광 거점단지로 조성하고, 전남의 주요 해수욕장 환경 개선을 위해 27억원을 투입해 안전하고 쾌적한 명품해수욕장으로 조성한다.

전남 섬 브랜드화 정책도 지속 추진한다. 주민을 섬 전문가로 양성하는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해 섬 코디네이터를 집중 육성하고, 섬을 통한 국제적 네트워크를 강화하기 위한 국제 청년 섬 워크캠프를 올해 6회째 개최해 글로벌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다. 전남 섬의 매력을 홍보하기 위한 온오프라인 콘텐츠도 제작해 배포하고, 젊은 층을 겨냥한 SNS채널도 운영한다.

박태건 전남도 섬해양정책과장은 "올해 추진하는 주요 사업을 통해 섬과 어촌의 정주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전남 섬과 어촌을 세계인이 찾는 명품 해양관광지로 거듭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광주시의회 교문위, 콘텐츠 산업 현장 방문

광주시의회 교육문화위원회 소속 시의원들이 10일 광주디자인진흥원, 광주영상복합문화관, 광주인쇄비즈니스센터 등 지역 콘텐츠 산업 기관을 둘러보고 애로사항을 듣고 있다.

<광주시의회 제공>

전남도, 초고령화사회 대응 강화 '치매안심 전남' 실현

치매관리 시행계획 확정...치유·인지건강 프로그램 확대 등

전남도가 체계적인 치매관리 시행계획을 마련, 추진한다. 치매 조기진단부터 예방, 치료, 돌봄을 아우르는 종합 치매관리 체계를 구축해 존엄한 삶의 질을 지원하겠다는 구상이다.

10일 전남도에 따르면 도는 전문화된 치매관리와 돌봄, 치매 관련 정책 기반 강화 등을 중심으로 하는 '2025년 치매관리 시행계획'을 확정했다.

시행계획은 치매 예방체계를 강화하고 고위험군 조기 발견과 치매환자 및 가족을 위한 맞춤형

지원을 확대하는 게 핵심이다.

구체적으로는 ▲인지건강증진 프로그램 확대 ▲비문해지를 위한 맞춤형 치매 예방 교육 개발 등을 통해 예방체계를 촘촘하게 구축한다.

산림·해양 치유프로그램과 인지건강 프로그램(뇌훈련 프로그램 '뇌총총')도 확대 운영키로 했다.

치매안심관리사 양성을 통한 방문 돌봄형 서비스 제공 체계를 구축하고 방문 돌봄 서비스를 확대

해 경도인지장애진단자 및 경증치매환자에 대한 돌봄도 강화한다.

치매안심마을도 107개소에서 120개소로 늘리고 '치매환자·가족 마음치유 프로그램'을 확대해 가족 돌봄 부담을 줄이고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대상을 기존 중위소득 120% 이하에서 140%까지 확대해 경제적 부담을 줄일 계획이다.

전남도 관계자는 "도민 누구나 거주 지역에 관계없이 치매 예방 및 관리 서비스를 받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광주시, 학자금대출 장기연체자 신용회복 지원

11월까지 신청 접수

대출 채무액의 5% 지원

광주시는 10일 "학자금대출 장기연체 중인 시민의 신용회복을 위해 '학자금대출 신용유이자 신용회복 지원 사업' 신청을 11월까지 받는다"고 밝혔다.

광주시는 참여자에게 1대 1 재무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며, 상담 후 한국장학재단과 채무 분할 상환약정 체결을 선택한 경우 채무액의 5%(100만원 이내)를 지원한다.

올해부터는 지원 대상 나이도 19~39세에서 전 연령으로 확대했다.

또 광주시와 업무협약을 맺은 한국장학재단은 신용도 판단정보(연체정보) 해지, 연체이자 전액 감면과 함께 재산 압류 등의 법적조치를 유예하는 혜택을 제공하고, 채무로 인한 경제적 제약을 덜어주기 위해 했다.

시는 경기침체가 지속되면서 학자금대출 장기연

체자가 늘어남에 따라 2020년 한국장학재단과 업무협약을 맺은 뒤 2024년까지 214명을 지원했다.

신청 대상자는 공고일 현재 광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한국장학재단의 학자금대출 부실채권 분할상환약정에 해당되는 신용유이자로 등록돼 있어야 한다.

참여 희망자는 광주청년통합플랫폼(<https://youth.gwangju.go.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광주시 누리집(www.gwangju.go.kr) 공고문을 참조하고, 학자금대출 신용유이 등록 관련 문의사항은 한국장학재단 누리집에서 확인하면 된다.

최경화 광주시 대학인재정책과장은 "학자금대출 연체 문제는 취업난과 맞물려 불법대출, 신용불량 등 빈곤의 시작점이 된다는 점에서 사회구조적 문제"라면서 "이번 사업으로 부채의 악순환을 끊고 지역사회 구성원으로서 당당히 자립할 수 있는 시작점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전남도, 신규 공무원 1394명 선발

사회적 약자 등 282명 선발도

전남도가 올해 신규 지방 공무원 1394명을 선발한다.

전남도는 10일 '2025년 전남도 지방공무원 임용 시험 계획'을 공고했다. 전남도 92명, 시·군 1302명(시·군의회 16명 포함)을 뽑는데, 직급별로는 6급 1명, 7급 52명, 8·9급 1287명, 연구사 25명, 지도사 29명이다. 직렬별로는 행정직 529명, 시설직 181명, 사회복지직 96명, 농업직 63명 등이다. 사회적 약자의 공직 진출 확대를 위해 장애인

195명, 저소득층 35명, 취업지원대상자(유공자) 20명, 고졸자 32명도 선발한다.

8·9급 공개경쟁임용시험의 필기시험 시간은 당초 100분에서 110분으로 늘어난다.

수의직·수의 연구직은 지난해부터 필기시험을 면제한 데 이어 올 하반기에도 임용시험을 추가적으로 시행한다.

올해 임용시험은 5회(상반기 3회·하반기 2회)에 걸쳐 시행되며, 자세한 시험정보는 전남도와 시·군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광주시, 관광진흥개발기금 상환 유예 소상공인 특례 보증 50억 우선 공급

광주시는 10일 "12·29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 관광업계를 지원하기 위해 문화체육관광부의 관광진흥개발기금 융자금 상환을 1년간 유예한다"고 밝혔다. 소상공인 특례 보증 50억원도 우선 공급한다.

지원 대상은 관광진흥개발기금을 상환 중이거나 올해 상환이 도래하는 업체로, 오는 5월 16일까지 거래 은행에 유예를 신청할 수 있다.

광주시는 지역 여행업체 154개 사가 상환 유예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광주문화신협이 평생 어부바 하겠습니다!

아름다운 금융 다채로운 금융 함께하는 금융

출자금 비과세 한도 상향
개인당 **2천만원** 까지 완전 비과세

광주문화신협



자산규모
1조 5천억원

창립 이후
30년 연속 흑자경영

복지장학재단 운영

당기순이익의
9% 이상 지역사회 환원



광주문화신협
대표번호 1644-7990

· 본 점 · 여신사업부 · 양산지점 · 운암지점 · 매곡지점 · 첨단지점 · 동광주지점 · 문흥지점 · 동림지점 · 각화지점